현불 논단

이게 '나'입니다

이미령
칼럼니스트



회색 · 빛바램 합성한 '그롬브레'
'염색 않고 흰머리 살기' 유행

염색 필수 시기엔 흰머리 불편
주위서 염색 조언 · 권유 이어져
'나'인채로 있을 용기 필요했다

은퇴, 가치있는 삶의 기회이며
흰 머리는 이를 알려주는 신호
건강 위해서 '그롬브레' 권한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인기 연예인들이나 유명 정치인들을 영어로 '셀러브리티(celebrity)'라고 한다. 간단히 줄여서 '셀럽'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무엇을 입고 먹느냐는 언제나 화젯거리다. 사람들은 그걸 따라하느라 바쁘다.

염색하지 않은 흰 머리카락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이 시대 최고의 셀럽이 아닐까 한다. 머리가 하얀 채로 다니는 중년들을 아주 많이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은 '더 이상은 염색하지 않고 흰머리 그대로 살기'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회색인 그레이(grey)와 빛바램의 뜻을 가진 옴브레(ombre)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 '그롬브레(grombre)'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머리카락이 허연 여성들 사진이 등장한다. 당장이라도 "염색할 때 됐네"라는 잔소리가 튀어나올 만한 사진들이지만, 요즘은 이게 유행이어서 일부러 빛이 바랜 듯한 톤으로 염색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이 유행은 반가워서 나도 따르고 있다. 나도 동년배들보다 일찍 머리가 세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끝없이 염색하라는 조언과 권유를 들어왔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염색이 그리 반갑지 않았다. 아무리 천연염색제라고 해도 그게 내 머리에 과연 좋을지 의심스러웠고, 거울 앞에 서면 흰 머리카락이 올라왔는지를 습관적으로 살피는 것도 피곤해졌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이 세는 대로 그냥 지내는 건 어렵지 않다. 문제는 사람들 앞에 나설 때다. "어? 이제 보니 흰머리였네"라는 소릴 들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겁이 나기까지 했다. 엄살이 아니다. 그건 용기였다. 실제로 머리 염색을 멈추고 흰 머리카락 그대로 다니다보면 "용기 있네요"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듣기 때문이다. "그렇지요"라고 웃으며 대답하지만 나는 속으로 말한다. "이게 나예요. 이게 나인 걸요"라고. 내가 나인 채로 당신을 만나는데 용기가 필요할 것까지 뭐가 있는가 싶어서 씁쓸하기도 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게 인생일진대 머리는 염색해서 젊어 보이고는 싶고, 지하철에 자리 나면 먼저 앉고는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흰머리는 청춘의 대열에서 완벽하게 떨어져나가는 걸 뜻하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내 인생과 세월이 내게 준 훈장이 아니겠는지….

〈중아함경〉 '대천나림경'에는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린 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명하는 대목이 나온다.

"내 머리를 손질하다가 단 한 올이라도 흰 머리카락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라."

어느 날 아침 신하는 백발 한 올을 발견하자 황금 족집게로 뽑아서 왕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그 백발을 보고 왕이 노래했다. "내 머리에 백발이 났네/수명은 갈수록 줄어드는구나/천사는 이미 이르렀거니/나는 이제 도를 배울 때로다."

천사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생로병사 이치를 의인화한 것이다. 왕은 이렇게 노래한 뒤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왕좌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었던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그 수행을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고 그 길을 나선 것이다.

머리카락이 칠흑같이 검고 왕성한 힘을 자랑하던 시절은 세속에서 지내지만 그 시간은 얼마나 힘이 들던가. 경쟁해야 하고 이겨야 하고 쌓아야 하고 모아야 하고 올라가야 하고 빼앗아야 하고 빼앗겨야 하고…. 그 끝없는 투쟁의 쳇바퀴에서 언제나 하차하게 될까? 왕은 그 날을 흰 머리카락을 발견하는 순간으로 정했다. 은퇴는 패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흰 머리카락은 그 시기를 알려주는 천사가 아닐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롬브레를 권하고 싶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걷자! 푸른 하늘 위해

출퇴근길, 1시간을 걷는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차를 이용하지 않으니 교통비가 절약되고 건강에도 좋다고 했다. 무엇보다 걸으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져서 차로 출퇴근할 때보다 여러모로 마음에 여유도 생겼다고 했다. 매일 "빨리 빨리"를 반복하며 아이를 등교 시킨 뒤, 숨 가쁘게 차를 몰아 출근하는 나로서는 어쩌면 힘겨울지도 모르는 그의 출퇴근길 걷기가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

차를 이용할 때보다 한 시간 먼저 일어나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걷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건강과 사색, 교통비 절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그의 걷기는 '환경'이라는 네 번째 토끼까지 잡는 소중한 걷기가 아닐까 싶었다.

매년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정해 환경 보전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모두가 참여하여 실천을 공유하고 있다. 올해의 환경 주제는 대기오염 퇴치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의 날 슬로건으로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걸음'을 정했다.

지구상 92%가 오염되거나 위험한 수준의 공기를 흡입하고 있고, 매년 대기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5조에 달한다고 하니 나의 한걸음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기도 하다. 한걸음의 보시, 한걸음의 자비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불편해도, 조금 익숙하지 않아도 오늘의 한걸음을 시작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매년 봄만 되면 미세먼지 주의보로 학교마다 체육시간 바깥 운동이 금지되어 아이들을 슬프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중국 탓을 하곤 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11월 발표된 한중일 3국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세먼지의 원인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공격해 왔다.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황산화물, 미세먼지와 같은 중국 대기 오염 물질이 한국 3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32%, 대(對)일본 영향은 25%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 대전, 부산의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체 기여율이 51%로 나타났다.

중국의 영향보다 절반 이상을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이 보고서대로라면 이제 중국 탓을 멈추고 우리 스스로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에 더욱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11월 23~24일 미세먼지 등 동북아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제21차 한 · 중 · 일 환경장관회의를 연 까닭도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다 함께 힘을 모아 동북아의 맑은 하늘을 되찾아야 한다는 자각에서다.

3국 환경장관들이 모여 앉았다고 당장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할 때 장관들의 만남이 힘을 얻을 것이다.

출퇴근을 걸어서 하는 지인이 환경장관보다 힘 있어 보이는 이유다. 나도 낙엽 떨어진 가을 끝자락의 길, 푸른 하늘을 위한 한걸음을 내디뎌 봐야겠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社說

소외이웃 돌봄이 佛法 실천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불교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홀로사는 노인이나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자녀를 비롯해 저소득계층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자비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쌀과 연탄, 김장김치, 방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전달하는 이들의 움직임은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또 다른 실천이다. 서울 조계사는 최근 김장김치 6500㎏을 담가 지역 돌봄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봉은사도 12월 7일 김장축제를 열고 약 9000여 포기의 김치를 담가 소외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제선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사찰, 단체들이 자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홀로노인들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추운 겨울나기가 큰 걱정이다. 난방에 필요한 연탄 구입마저도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다. 10년 넘게 전기장판을 쓰며 화재에 노출되기도 한다.

지자체를 비롯한 많은 사회봉사단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불황으로 불자가정 경제가 팍팍한 형편이지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나눔과 협동의 미덕을 살려야 한다.

부처님은 항상 부처님 가르침이 현실에 실현돼야 함을 설하셨다. 대중과 함께 하는 불교의 가장 큰 방법은 바로 사회공동체에 대한 기여, 그리고 헌신이다.

보살행은 입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인간을 위한 불사, 이웃을 위한 불사를 진심으로 할 때 바로 스스로 정진하는 과정의 결실이 맺어질 것이다.

적은 금품이라도 십시일반으로 나누는 자비의 행렬에 동참해 모두가 따뜻한 연말연시를 맞도록 하자.

쉬운 문화재 안내판 개선 환영한다

"이 비의 비갓은 팔작지붕형이고 지대석(地臺石)은 땅에 묻혀 있다. 비문(碑文)은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어려운 상태다." 이는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5호 안양 삼막사 사적비의 안내판 내용이다. 팔작지붕, 지대석 등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안내가 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영문 안내판을 만들었을 터이니 외국인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같이 문화재 안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안내판들이 쉽고 재미있게 개선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문화재청은 전국 1,392건의 문화재에 설치된 약 2,500여 개의 안내판을 알기 쉽고 보기 쉽게 개선 중에 있다.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은 정부혁신 사업으로 2022년까지 약 3,500여 건의 문화재에 설치된 안내판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해하기 쉬운 문안,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중심의 유용한 문안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간 문화재 안내판은 전문 학술서나 교과서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채워져 왔다. 한문 위주의 전문 용어들로 현재 한글 세대가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된 문화재 안내판에는 문화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했으며, 지역 설화 등을 반영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했다. 상상도나 도상으로 문화재의 이해를 돕는 것도 눈길을 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아무리 좋은 문화재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불교계 역시 어려운 불교미술용어를 대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불교문화의 대중화는 이런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탈 종 공 고

• 법 명 : 천 공 (속명 / 김성식)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37-5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액)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7시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액)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